



3일 오전 광주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광주공동체 기자회견이 열려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5개 구청,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내란정신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끝나지 않은 내란…개헌 통해 ‘빛의 혁명’ 완수”

12·3 불법 개헌
기념 1주년

광주공동체, 5·18민주광장서 기자회견
일부는 ‘사회대개혁’ 등 손팻말 들어
시·도교육청 ‘민주 교육주간’ 등 운영

1년 전 불법 비상계엄에 맞섰던 광주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와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사태의 종식을 위한 개헌을 촉구했다.

‘빛의 혁명 1년, 내란·외환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3일 오전 11시 광주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약 250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시작보다 일찍이 민주광장을 찾은 일부 참여자들은 ‘내란정신’, ‘사회대개혁’,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지난 1년에 대한 소회를 나눴다. ‘윤석열 탄핵’이란 글자가 새겨진 옷을 입은 강아지(기견이)와 함께 온 ‘기견이 아빠’는 “1년 전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게

아직도 생생하다”면서도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승리지만, 청산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위경종 전 광주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장은 “빛의 혁명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쿠데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특히 5·18민주화운동을 떠올리며 시민들이 결의를 다진 것은 그야말로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년 전 지도자들이 모인 연석회이나 광장에서 봉어빵을 나누며 내란에 저항함으로 ‘광주는 역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사회개혁의 대장정에는 지방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니 광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개인 발언 후 이들은 합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어 “내란을 막지 못한 불완전한 시스템도 아직 바뀌지 않았다”며 “다시는 내란을 꿈꾸는 세력이 나을 수 없도록 헌법 질서를 보완하고 새롭게 만드는 일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날 ‘12·3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을 갖고 민주시민교육 등 5대 실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14일까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통해 각 학교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현수막 게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기교육 ▲헌법 수호 실천 다짐 작성, 헌법 필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민주적 가치 질서 회복 기

념 교육주간’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민주시민 헌법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해남고등학교는 지난 3월부터 ‘헌법 교육’을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남고는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책임의 조화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 참여의 역사적 사례 등을 주제로 학생 참여형 토론 수업을 진행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이번 교육주간은 단순한 사건의 기억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박선옥 기자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국가시스템 붕괴”…내년 1월28일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만원을, 알선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깊이 개입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암에 셨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시스템 붕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로 지장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부로 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견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

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래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철도노조 호남본부, 오는 11일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호남지방본부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3일 “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일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와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일까지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11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파업 당일 고속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윤찬웅 기자

‘항소심 무죄’ 백금렬 교사 상고심 다퉈야 한다

광주지검 “법리 오해” 불복

1·2심 엇갈려 대법 판단 주목

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비방하는 목적의 집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 1·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은 백금렬씨가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 형사부(배운창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백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불복했다.

앞서 백씨는 교사 신분이었던 지난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와 광주 총장로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참여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의미가 담긴 노래를 부르거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 상규를 고려하더라도 백씨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 수행에 연관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1일 전국 47개 시민·교원단체는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금렬 교사는 무죄”라며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고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광주지검에 상고 포기를 촉구하는 서명도 전달했는데, 여기에는 사흘간 1천여명이 참여했다.

/안재영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신속하고 확실한 A/S
-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